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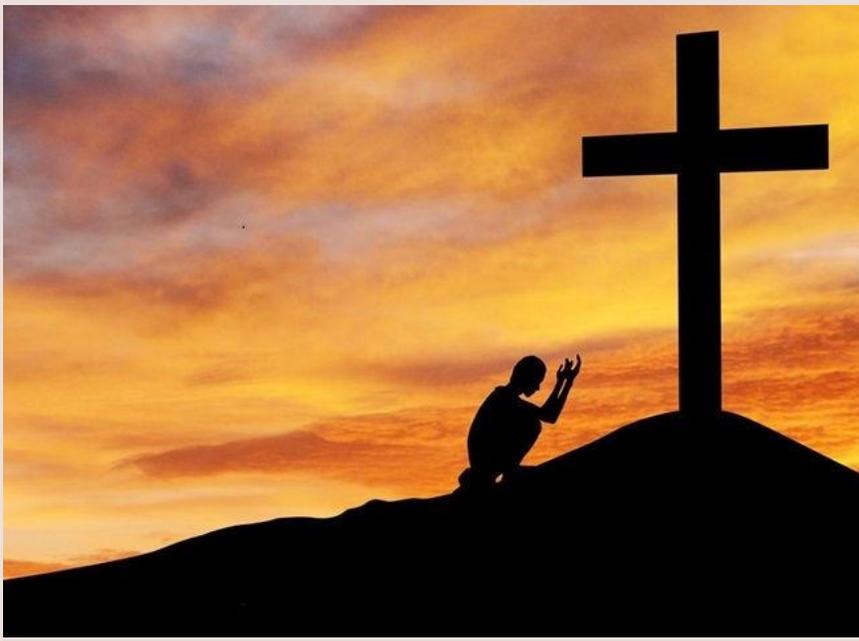
Understanding Jesus and the Cross of Calvary / 예수님과 갈보리 십자가를 이해하다

A Compilation by Allan Ask – August 2025

Website: <https://www.truedino.com/>

Email: truedino@yahoo.com

Part of the article was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so may not be 100% correct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계속 읽어서 더 깊이 이해하세요!

The Love of God Expressed Through the Cross of Calvary if Seen in the Right
Way! Read on to Understand!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배경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A brief explanation of the Cross of Calvary and how it relates to each person today. But first, some necessary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Cross of Calvary event.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창조물과 분리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을 행하실 수 없으며, 누군가를 잘못하도록 유혹하실 수도 없습니다(야고보서 1장 13-15절). 그분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7절에 나오는 십계명과 갈라디아서 5장 19-21절과 같은 다른 성경 구절들은 그분의 거룩함 또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God the Creator is holy both morally in His actions and thoughts and in His essence. God is a personal being and separate from His Creation. God can never do wrong or tempt someone to do wrong, James 1 v 13-15. He is unblameable in every way. The 10 commandments, in the book of Exodus 20 v 1-17, as well as other scriptures such as Galatians 5 v 19-21 reveal his standard of holiness or righteousness.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이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은 약 6,000년 전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당신의 영을 거두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타락한 죄악된 상태, 즉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서 다윗 왕이 자신의 타락한 죄악된 상태와 방탕함을 탄식하는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God chose to create "free willed" beings even though He knew his creation would choose to disobey and go their own way. That disobedience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with Adam and Eve around 6,000 years ago. The result wa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God had to withdraw His Spirit from the hearts of Adam and Eve. Adam and Eve's offspring were now born in a fallen sinful state i.e. a broken relationship with their Creator. Listen to King David as he lamented his fallen sinful condition and waywardness in Psalm 51 v 1-5.

시편 51 v 1-5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Psalm 51 v 1-5

1 Have mercy upon me, O God, according to thy lovingkindness: according unto the multitude of thy tender mercies blot out my transgressions.

2 Wash me thoroughly from mine iniquity, and cleanse me from my sin.

3 For I acknowledge my transgressions: and my sin is ever before me.

4 Against thee, thee only, have I sinned, and done this evil in thy sight: that thou mightest be justified when thou speakest, and be clear when thou judgest.

5 Behold, I was shapen in iniquity; and in sin did my mother conceive me.

For the record God heard David's prayer and did forgive and cleanse him! David was forgiven as he Biblically repented and looked forward to the future Messiah's payment for his sin on the Cross of Calvary! So there is hope for you and me!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의 타락한 육신과 방탕함을 한탄하며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 v 17, 18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나중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육체적 욕망을 죽일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The Apostle Paul who wrote most of the New Testament also lamented his fallen flesh and waywardness, "he said that no good thing dwelleth in me!".

Romans 7 v 17, 18

18 For I know that in me (that is, in my flesh,) dwelleth no good thing: for to will is present with me; but how to perform that which is good I find not.

19 For the good that I would I do not: but the evil which I would not, that I do.

Paul also later rejoiced that through the indwelling Holy Spirit he could mortify the fleshly desires, so all was not lost!

에덴동산에서 그러한 불순종을 조장한 것은 루시퍼(사탄)라는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에도 반역이 있었습니다. 루시퍼(하늘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와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기로 선택했습니다(에스겔 28장 12-17절, 이사야 14장 12-16절).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단 하나의 금지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에 대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브가 그 열매를 먹으면 신과 같이 되어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브는 속아서 루시퍼를 믿었고, 그 죄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장면은 매우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루시퍼는 인류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각 사람의 타락한 상태와 그것이 가져오는 방탕함은 그 이후로 죄와 나쁜 행동의 악몽이 되어 왔습니다.

Contributing to that disobedience in the Garden of Eden was a fallen angel named Lucifer (Satan). In God's creation of angels there was also a rebellion. Lucifer (the angel who led worship in heaven) and a third of the angels chose to disobey and oppose God (Ezekiel 28 v 12-17 and Isaiah 14 v 12-16).

In the Garden of Eden God had given Adam and Eve only one prohibition; not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Lucifer spoke with Eve saying that God was lying to her about the prohibition to "not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Satan said Eve would receive a blessing if she ate of the fruit of the tree. Satan said Eve could be like a god if she ate the fruit; gaining special wisdom and knowledge. Eve was deceived and believed Lucifer and fell with that transgression. (Genesis chapter 3)

The whole scene looks pretty bad doesn't it? Lucifer had won a major victory over the human race. The fallen condition of each person and the waywardness it brings has been a nightmare of sin and bad behaviour ever since.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해결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창세기 3장 15절과 49장 10절)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되돌리기 위해 메시아가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지구에 보내진 메시아를 통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실"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도덕적 경계를 어겼습니다. 우리 각자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요구를 촉발합니다. 최악된 행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된 도덕적 뜻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빛이 육체적, 영적 죽음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의

심판은 불변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야 할 그 죄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But God in this hopeless situation conveyed that there was a solution to undo what had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A glimmer of hope was provided by God to Adam and Eve and to each of their descendants! (Genesis 3 v 15 and Genesis 49 v 10). A Messiah would be sent to undo what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You see God is both Holy and Loving. God in eternity past had already come up with a way that he could be both “just” and “loving” through a Messiah sent to Planet Earth. Oh the infinite wisdom of God!

Each one of us,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have violated God’s holiness and moral boundaries. Each one of us have incurred what is called a “debt of sin” in God’s courtroom with our disobedience. This wrong behaviour triggers God’s justice requirement. Sinful actions are firstly directly against God as disobedience to God’s revealed moral will. God has said that a debt of sin requires the person’s death both physical and spiritually and separation from Him forever! This justice decree is unchangeable. Someone must pay that debt of sin incurred in God’s courtroom!

잠시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 어떤 죄악이 "죄의 빛"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자신의 길을 버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Let’s digress a bit and look at what transgressions incur a “debt of sin”.

Remember that God has to show us our fallen sinful condition so we will forsake our own ways and look to the Cross of Calvary.

출애굽기 20장 1-17절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지만 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과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의 타락한 본성의 열매는 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구절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빛”을 지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원칙은 술 취함이나 마약 남용과 같은 특정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며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 v 33-36

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The 10 Commandments in Exodus 20 v 1-17 (God's covenant with Israel but the principles apply to all people) and the fruit of our fallen nature in Galatians 5 v 19-21 reveal the problem. These verses show how in thought, word and deed we incur a "debt of sin". One other principle is that when we practice a particular sin such as drunkenness or drug abuse as two examples, God says we become a "slave of that sin" which eventually destroys us!

John 8 v 33-36

33 They answered him, We be Abraham's seed, and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how sayest thou, Ye shall be made free?

34 Jesus answered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committeth sin is the servant (slave) of sin.

35 And the servant abideth not in the house for ever: but the Son abideth ever.

36 If the Son therefore shall make you free, ye shall be free indeed.

갈라디아서 3장 22-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새 은혜 언약 아래 있습니다)

Galatians 3 v 22-25 reads,

22 But the scripture hath concluded all under sin, that the promise by faith of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em that believe.

23 But before faith came, we were kept under the law, shut up unto the faith which should afterwards be revealed.

24 Wherefore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bring us unto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God's moral law shows us our sin nature)

25 But after that faith i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a schoolmaster. (we are no longer under the Old Testament law covenant but now under the new Grace covenant)

출애굽기 20 v 1-7 and 12-17 reads,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기본적으로 욕설과 욕설)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전쟁이나 사법 제도에서 국가를 지키지 않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4 간음하지 말지니라(결혼 생활 중 성적 불륜)

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기본적으로 거짓말)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Exodus 20 v 1-7 and 12-17 reads,

3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4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nor serve them: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6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7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basically cursing and swearing)

12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13 Thou shalt not kill. (premeditated murder not defending your country in war or the justice system taking a life for a life taken)

14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sexual unfaithfulness when in a marriage)

15 Thou shalt not steal.

16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basically lying).

17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thing that is thy neighbour's.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이란 결혼 전의 성관계를 뜻함) - (음탕함은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이단이란 참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사상을 갖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 (여러 가지 죄를 삶의 패턴이나 방식으로 실천함)

Galatians 5 v 19-21 reads,

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manifest, which are these; Adultery, fornication (sex outside of a married man and women), uncleanness, lasciviousness (publicly parading your sin before others),

20 Idolatry, witchcraft, hatred, variance, emulations, wrath, strife, seditions, heresies (holding and teaching wrong ideas about the true God),

21 Envyings, murders, drunkenness, revellings, and such like: of the which I tell you before, as I have also told you in time past,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practice various sins as a pattern or way of life)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사야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타락한 죄성을 분명히 깨달았던 그의 간증을 항상 좋아합니다!

이사야 6 v 1-5

웃시아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 이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이사야는 자신의 내면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차 자신의 죄값을 치르실 메시아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Recognizing your spiritual condition is necessary to seeing your need for the Cross of Calvary. I always like the testimony of Isaiah when he saw the Lord's holiness and clearly saw his own fallen sinfulness!

Isaiah 6 v 1-5 reads,

1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also the LORD sitting up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and his train filled the temple.

2 Above it stood the seraphims: each one had six wings; with twain he covered his face, and with twain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ain he did fly.

3 And one cried un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4 And the posts of the door moved at the voice of him that cried,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smoke.

5 Then said I, Woe is me! for I am undone;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ine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Isaiah had seen his inner self and his utter spiritual bankruptcy. He was ready to come to the Messiah who would pay for his sin in the future. And now the Good News can be revealed!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범법이나 "죄의 빛"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죄 없고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와 제 죄의 빛을 갚을 수 있다면,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고 창조주와 회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속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는 "대속"입니다. 사랑으로 제 자리에 서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마지막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창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름발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읽으시고, 날씨를 멈추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40일 유혹을 물리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해 바로잡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긍정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긍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영적 빛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개의 물세례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루시퍼와 바리새인들이 죄를 짓거나 율법을 어기도록 유혹했지만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 끊임없이 가해진 압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고한 사람으로서 성자 하나님은 거짓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루시퍼와 당시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의 죽음에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그들의 죽음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죄의 빛"을 갚으셨습니다! 이로써 회개하는 모든 죄인에게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을 제 죄의 빛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무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무덤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You see, there is one way that a person can be pardoned in God's courtroom for their transgressions or "debt of sin". God's character of love is displayed here! If there was a sinless perfect human who would enter his courtroom and could pay the debt of my sin, I could be pardoned. I could receive forgiveness and have a restored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Another term for this payment is "substitutionary atonement". Another in love, stood in my place and took the punishment that I deserved (shed His atoning blood as the final Passover Lamb). For God has said in Hebrew 9 v 22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If we think a bit deeper the question is; who was that person on the Cross of Calvary? The Bible says that the second person of the Holy Trinity entered creation and took on a human body. God the Son entered creation, giving sight to the blind, raising the dead, healing the

lame, casting out demons, reading people's minds and motives, stopping the weather, resisting Satan's 40 days of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correcting the Pharisees about the Law, affirming Adam and Eve, and affirming Noah's flood. God the Son gave true spiritual light to all who would receive it!

John the Baptist prepared the way of the Messiah. He called Israel to the water baptism of repentance.

Jesus lived a sinless life even though Lucifer and the Pharisees sought to entice Him to sin or disobey the law. Can you imagine the pressure continually put on Him?

God the Son as an innocent man had to endure a sham trial and crucifixion. Lucifer and the spiritual and political leaders of that time colluded in his death. But they had no idea that His death would actually seal their demise! You see Jesus paid that "debt of sin" for every person who would ever live! This opened the door so that forgiveness and a restored relationship to God could be offered to every repentant sinner that would receive it! The greatest victory ever won had occurred on the Cross of Calvary. God the Father accepted that payment made by His Son on the cross as full payment for my sin debt! Because of who Jesus is, an infinite being, the grave could not hold Him and the third day He resurrected! There were over 500 eyewitnesses to His resurrection! (1 Corinthians 15 v 3-8)

예수님은 이제 용서와 사면, 새로운 영적 삶, 정신적, 정서적 자유, 부활의 몸,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경적 회개의 상태에서 이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빛에 대해 그분께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입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며, 당신의 삶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음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성경적 회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대가를 치르며), 당신의 의지의 보좌를 그분께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당신의 옛 길이 아닌 그분의 길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Jesus now offers forgiveness, pardon, a new spiritual life, mental and emotional freedom, a resurrection body and eternity with himself! But you must personally receive it in a state of Biblical repentance. You must agree with Him about your own personal

debt of sin. This is Biblical repentance where you acknowledge that your sin is against God and by your life and behaviour you have led other people astray.

Biblical repentance produces a willingness to turn from your sinful ways, agreeing to become his disciple (counting the cost), and being willing to abdicate the throne of your will to Him. To learn to follow His ways not your old ways!

Counting the Cost to come to Christ and follow Him!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따르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누가복음 14 v 26, 27, 33 Jesus speaking,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Luke 14 v 26, 27, 33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26 If any man come to me, and hate not his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ethren, and sisters, yea, and his own life also, he cannot be my disciple.

27 And whosoever doth not bear his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33 So likewise, whosoever he be of you that forsaketh not all that he hath, he cannot be my disciple.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한 그 사랑의 대가를 100% 신뢰합니다! 이 사랑의 대가를 믿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의 영적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죄(과거, 현재, 미래)의 용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부활 시에

깨끗하고 불멸의 몸을 얻게 해 줍니다! 구원은 또한 우리가 아직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의구심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 고집, 교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크게 방해합니다. 저는 회개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간구했고, 그분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다른 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새 삶을 사는 것"이나 "자신을 개혁하려는 노력"이나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길들은 "죄의 빛"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변화는 갈보리 십자가와 영적 거듭남에서 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선하고 합당한 영적 열매를 맺을 자격을 갖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언젠가 사람으로서 그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In this state of mind and attitude you trust 100 percent in that love payment on the Cross of Calvary as the payment for you! Upon trusting in this love payment you will receive Christ's righteousness deposited to your spiritual bank account and ar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His pardon provides; forgiveness of sin (past, present and future), freedom from the power of sin and Satan, and a pure immortal body at the resurrection! Salvation also brings

inner peace of mind and inner stability even though we are still in a world full of trials and tribulations.

You might have to ask Him to help you to get over your personal fears and reservations. We are all afflicted with fears, stubbornness and pride that greatly hinder us in coming honestly, humbly and contritely before God. I had to ask him to help me repent and trust which He did.

Many will want to bypass the Cross of Calvary and try their own path to God. In this way they can still be boss of their own lives. Combine that with Satan offering many different paths to God to deceive people and you have a world of confusion. But the true God doesn't accept these other paths nor "turning over a new leaf" nor "trying to reform yourself" nor trying to embark on a "program of self-improvement" for these paths do not deal with the "debt of sin". Forgiveness and change comes from the Cross of Calvary and a spiritual rebirth. Onl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qualifies to produce good and acceptable spiritual fruit.

Can you imagine what was going through God the Son's mind when he was creating the world and all living things visible and not visible. He knew he would have to enter that creation as a man one day!! (Colossians 1 v 16)

성경적 회개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 아들의 귀한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옵니다. 저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제 삶을 버립니다. 당신 아들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오직 제 죄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저의 구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소서. 제 뜻을 성령께 맡기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성화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제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한 영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머물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많은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표적과 기사들을 분별하여 분별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0-18절의 명령대로 매일 영적 갑옷을 입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 거하고 죄와 자기 의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이 제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할 때, 그의 정죄 아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죄를 빨리 인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에게 제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A suggested prayer of Biblical Repentance and Biblical Faith in the Son of God

"Heavenly Father I come to you in the precious name of your Son. I know that I am a sinner by thought, word, and deed. I have lived my life for myself and not for you. I renounce my life of sin and selfishness. I trust in your Son's shed blood payment alone on the Cross of Calvary for my sin debt.

I receive your Son as my Saviour and Master. Forgive and cleanse me of my sins. I yield my will to the Holy Spirit. Make me the person that you want me to be! Amen"

A suggested Sanctification Prayer also.

"Heavenly Father in the name of your Son I ask that you would give me a teachable and humble spirit so I may understand your Word correctly.

Help me to renew my mind in the Word of God and to stay on the narrow path that leads to life!

Give me discernment to see and avoid the many false brethren, false teachers, false Apostles, false Prophets, false signs and wonders movements speaking in your name!

Help me to put on my spiritual armour daily per your command in Ephesians 6 v 10-18. Help me to abide in the Spirit and not quench the Spirit with sin and self-will!

When Satan reminds me of my past sins help me to not stay under his condemnation. Help me to quickly acknowledge my sin. Help me to point Satan to the shed blood of Jesus in payment for my sin! For the blood of Jesus cleanses from all sin! Amen!"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다른 길들은 영적 어둠의 가짜 길일
뿐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매우 진지하시지만, 용서의 마련에 대해서도 매우 매우 진지하십니다! 사탄이 당신을 위협하거나 속이거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단지 “70년 동안의 짧고 만족스럽지 못한 죄의 쾌락”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추구하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단지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죄의 쾌락”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으며,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10 V 28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갈보리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행위나 삶으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죄값을 스스로 치르겠습니다! 이 슬픈 사건은 요한계시록 20장 10-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0 V 10-15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Jesus said he was the only door into heaven! Other paths that claim to go to Heaven are counterfeit paths of spiritual darkness! The Bible say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Fear has the meaning of “taking seriously what God has said”. God is very very serious about the consequences of unrepented sin but is also very very serious about the provision of forgiveness! Don’t let Satan intimidate or deceive you or scare you away from the Cross of Calvary!

Don’t just live for the “brief and unsatisfying pleasures of sin for 70 years” but seek eternity!

It was said of Abraham that “he looked for a city whose builder and maker was God” declaring that he was but a “pilgrim passing through this world of wilderness”! (Hebrews chapter 11)

By faith Moses eschewed the “pleasures of sin in Pharaoh’s court” and chose “to suffer affliction with the people of God”, seeing the invisible hand of the true God! (Hebrews chapter 11)

Matthew 10 v 28

28 And fear not them which kill the body, but are not able to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ich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If you ignore or reject the Cross of Calvary you are saying to God “judge me by my works or life”. I will pay for my own sins! That sad event is recorded in Revelation 20 v 10-15. Please don’t go there! Call upon Jesus to put your name in the “book of life”!

Revelation 20 v 10-15

10 And the devil that deceived them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nd sha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 ever and ever.

11 And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that sat on it, from whose face the earth and the heaven fled away; and there was found no place for them.

12 And I saw the dead, small and great, stand before God; and the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out of thos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works.

13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ell delivered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ry man according to their works.

14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15 And whosoever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Supporting Scriptures - 뒷받침하는 성경구절

사도행전20 V 21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Acts 20 v 21

21 Testifying both to the Jews, and also to the Greeks, repentance toward God, and faith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사도행전2 V 38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Acts 2 v 38

38 Then Peter said un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e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베드로후서3 V 5-9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 Peter 3 v 5-9

5 For this they willingly are ignorant of, that by the word of God the heavens were of old, and the earth standing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6 Whereby the world that then was, being overflowed with water, perished:

7 But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by the same word are kept in store, reserved unto fire against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en.

8 But, beloved, be not ignorant of this one thing, that one day is with the Lord as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s one day.

9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as some men count slackness; but is longsuffering to us-ward,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갈라디아서 2 V 16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Galatians 2 v 16

16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이사야 26 V 3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Isaiah 26 v 3

Thou wilt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because he trusteth in thee.

로마서5 V 1-21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 이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Romans 5 v 1-21

1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2 By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wherein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3 And not only so, but we glory in tribulations also: knowing that tribulation worketh
patience;

4 And patience, experience; and experience, hope:

5 And hope maketh not ashamed;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by the Holy Ghost which is given unto us.

6 For when we were yet without strength, in due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7 For scarcely for a righteous man will one die: yet peradventure for a good man some would even dare to die.

8 But God commendeth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9 Much more then, being now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10 For if, when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being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11 And not only so, but we also joy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we have now received the atonement.

12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13 (For until the law sin was in the world: but sin is not imputed when there is no law.

14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Adam to Moses, even over them that had not sinned after the similitude of Adam's transgression, who is the figure of him that was to come.

15 But not as the offence, so also is the free gift. For if through the offence of one many be dead, much more the grace of God, and the gift by grace, which is by one man, Jesus Christ, hath abounded unto many.

16 And not as it was by one that sinned, so is the gift: for the judgment was by one to condemnation, but the free gift is of many offences unto justification.

17 For if by one man's offence death reigned by one; much more they which receive abundance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shall reign in life by one, Jesus Christ.)

18 Therefore as by the offence of one judgment came upon all men to condemnation; even so by the righteousness of one the free gift came upon all men unto justification of life.

19 For as by one man's disobedience many were made sinners, so by the obedience of one shall many be made righteous.

20 Moreover the law entered, that the offence might abound. But where sin abounded, grace did much more abound:

21 That as sin hath reigned unto death, even so might grace reign through righteousness unto eternal life by Jesus Christ our Lord.

골로새서1 V 13-22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Colossians 1 v 13-22

13 Who hath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hath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14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15 Who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16 For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that are in heaven, and that are i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ey be thrones, or dominions, or principalities, or power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17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all things consist.

18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ho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all things he might have the preeminence.

19 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should all fulness dwell;

20 And,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unto himself; by him, I say, whether they be things in earth, or things in heaven.

21 And you, that were sometime alienated and enemies in your mind by wicked works, yet now hath he reconciled

22 In the body of his flesh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and unblameable and unproveable in his sight: